

## 빼앗긴 들에도..

오늘은 푸른 하늘과 따뜻한 봄바람이 맞닿아 모처럼의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이제 정녕 지겹도록 춥고 긴 겨울은 다 가버린 것인가.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시 한편이 생각난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시인은 이 시를 30년 일제 강점기로 빼앗긴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썼다. 나는 이 시를 이민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해본다. <빼앗긴 들>은 나의 생존권 내지는 삶의 터전을 잃었음이다. 먼저 왜 빼앗겼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빼앗김>은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강제적 수탈>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논리나 시장경제의 특수상황 (IMF, 세계 금융대란 등), 사회제도의 불합리 등에 휩싸여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것이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70만원 방세와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만 남기고 세모녀가 동반자살한 사건은 사회제도의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다. 두번째는 <자의적 상실>이다. 내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살아볼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나의 판단 착오나 과실, 빈곤의 악순환, 정보부재 등,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나의 결격사유로 인해 빼앗긴 것이다. 대부분의 소시민들 상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번째가 <방임적 상실>이다. 나의 게으름과 무지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방임과 무관심, 열등과 무력감, 자포자기 등으로 열심히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임적 상실은 혼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신앙이 무너진다. 건강을 헤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시는 총 10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1연과 마지막 10연은 질문과 대답 형식이다. 즉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로 끝을 맺는다. 2연과 3연은 봄에 대한 몽상적 상태에서 내 자신이 들판에 나선 이유를 묻는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3,4,5연에서는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6 연에서는 봄을 맞이할 기쁨과 의욕을 노래한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8 연에서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제시한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 좋은 팟조차 흘리고 싶다.” 누구나 살고 싶어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한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9 연에서 자신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자신을 자조(自嘲)한다.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으웁다. 답을 하려무나.” 마지막 10 연에서는 <상실과 현실의 한계>를 노래한다.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

봄은 아름답다. 봄은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봄을 기다린다. 그러기에 신은 누구에게나 봄을 주신다. 봄날은 온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모든 땅이 산천초목으로 푸르른 것은 아니다. 싱그러운 새싹을 피우기 위해 긴 겨울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땅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봄을 노래할 수 있다. 생존투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봄날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들녘>이 없으면 나의 봄은 없다. 다른 사람의 들녘에 핀 봄을 부러워하고 망연자실 쳐다볼 뿐이다. 준비된 자만이 봄을 노래할 수 있다. 그러니 빼앗겼든, 잃어버렸던 간에 무엇보다 먼저 나의 <빼앗긴 들녘>을 찾아와야 한다. 현대인에게 <빼앗긴 들녘>은 무엇인가? 물질적 자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본도 해당한다. 사업밀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간의 사랑, 가정의 행복, 굳건한 믿음, 희망, 소망, 우정, 인간 관계등이 포괄적으로 해당한다. 빼앗긴 것은 찾으려 한다. 우리는 이 단계를 <상실과 회복>이라고 한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에서 혼자라는 고독, 미움, 질투 속에서 꿈과 사랑, 희망을 잃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우리 현대인은 물질이라는 한가지를 얻기 위해 꿈과 우정, 사랑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기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이별, 육체적 질병, 자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요즘 한인사회의 서민층을 보면 언제 <빼앗긴 들>을 찾으려나, 적지않은 노파심이 생긴다. 한국사람 특유의 <깡다구>라는 근성이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은근과 끈기, 불굴의 투지, 강한 생활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어, 육체가 강한 것도 아니야,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야,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가리는 것만 많다.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다. 자기 형편에 과분한 식탁을 차려 놓아도 밥을 먹지는 않고 반찬 투정만 하면 배고픈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봄날은 오건만 아직도 손바닥만한 내 밭대기도 없이 <빼앗긴 들녘>에만 서 있으면 어찌자는 것인가. 나의 빼앗긴 들은 내가 찾아야 한다. 다시 시작하자..